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학개 2:1-9



손달익 위임목사

다니엘은 절망의 시기에 태어났으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포로였던 그가 위대한 정치인이며 신앙인의 사표(師表)로 남게 된 것은 시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Otto J. Baab은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 헌신, 전문성, 봉사, 희생,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낙관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구 환경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론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제시합니다. BC536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하자 많은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등과 함께 귀국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실망과 아픔이 더 컸습니다. 너무나 황폐해진 고국의 산천을 보면서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갖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성전재건 사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반발과 저항, 모함과 방해가 많은 가운데 결국 성전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백성을 격려하면서 다시금 성전 재건 사역에 나서도록 촉구했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것이라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 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학 1:14-15).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에 이 시기가 다리오왕 2년 6월 24일이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사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전의 왕 캄바세스 2세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유다 지방에서 거짓 보고서 한 장이 전달되자 심사숙고도 없이 공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캄바세스가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살피고 문서 참고에서 과거 고레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한 문서를 찾아 확인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 재개를 허락하고 막대한 재정지원도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역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에스라 6:7-8)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을 결심하고 신앙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오자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학 2:4).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순전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태양은 당신 없이도 떠오르고 당신 없이도 서산으로 길 찾아서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에 감동받고 사역에 발 벗고 나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주십니다.

3.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의 규모가 왜소하다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건축 시작할 때 그 주춧돌이 놓인 것만 보고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 후에는 ‘이렇게 보잘 것 없는가?’라며 실망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모든 필요한 것들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여한 없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당시는 유다왕국의 국력이 전성기여서 문제가 없었고 주변 나라들의 최고 재료와 최고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마음껏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을 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9절).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대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법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권력과 돈으로 지은 첫 성전보다 땀과 눈물과 피로 지은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순전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일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1. 지친 사람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536년 42,3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의 인솔로 제1차 귀환민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던 예루살렘은 패망 당시보다 더욱 처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장 중심점이었던 성전은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올 때의 다짐처럼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기쁨에 힘을 보태고 정성을 기울여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소박한 규모로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북 왕국 후손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성전 건축을 재개할 시기가 아니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 (학 1:2)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그들을 통렬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자기들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냐고 물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삶의 핵심인 것을 방치한 채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 넣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 1:6)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2.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십니다!



김용기 안수집사
(2024홍해작전 차량분과장)

2024 홍해작전 주제는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사람에겐 길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안전한 나라, 생존과 번영이 보장된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교회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에 홍해작전 참석 차량으로 차고 넘쳐 주님께서 보시기 좋을 정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주차장 1층, 2층 주차면이 없을 때 지하 3층에 내려가시면 가능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시작한 홍해작전은 창세기 12장 1-9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위임목사님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힘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는 기도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15일간 새벽기도회로 다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홍해작전은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모두가 친숙해져 있으며 한 해의 중간지점에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점검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걱정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노예생활의 고된 시간이

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애굽 생활을 모두 버리고 기약도 없는 불투명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결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한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평일 새벽 5시 현종필 지도목사, 본부장 김혜언 장로 그리고 각 분과에서 여러 집사님과 준비 모임 후 각자 홍해작전을 섬기는 일꾼들로 맡은 분야에서 수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은혜입니다. 새벽의 피곤함과 작은 번거로움을 떨쳐 버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열어 주신 홍해를 서울교회 교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 개인 앞에 있는 홍해는 물론 가정과 교회 및 국가와 민족 앞에 있는 홍해를 함께 건너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 홍해장터는?

1. 홍해장터 팁(TIP)!

- 1. 2024 홍해작전 스토리북 꼭 지참!!
- 2. 홍해은행에서 '홍해페이'로 교환!
- 3. 개인 장바구니 지참 필수!

* 홍해장터는 바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획득한 홍해페이를 당당히 구매하는 **"믿음의 잔치"**입니다.



1. 새벽기도회 참석 (본당 2, 3층)

2. 감사품 수령(2, 3층)
신임임직자 제공



3. 홍해페이 교환
페이 교환은 두 지점으로
메추라기점:2층 202호
만나점:8층 로비

4. 홍해장터 입장
7시 15분-손달익 위임목사님 기도
7시 20분- 장터 상품 매입

5. 성도의 교제 시간

6. 즐겁게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1910년 8월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통치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의 날이다.

36년간의 온갖 핍박과 착취에도 1919년 3월 1일에 자주 독립선언을 선포하였으나 독립을 향한 희생과 민생은 도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당시 독일 또한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일본도 독일과 이태리와 연합하며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여겨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미국이 연합국에 합세하는 계기가 되어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도 폭탄이 투하되었다. 이에 8월 14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으나 폭탄 2차 투하 하루 전



에 소련이 연합군에 합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쟁 종료 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위도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할 당하였고 소련으로 인해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남한은 8월 15일 정부수립을 하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에게서 무기를 지원 받고 중국에게 전쟁 승인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했고 38선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낙동강 최후 저지선까지 물러난 상황에서 유엔의 결의로 연합군이 참전함에 힘입어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다.

2년여의 전투가 1953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휴전상태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러한 일은 세계초유의 이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일본의 패배, 6.25 전쟁 중 상임이사국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연합군이 파견되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는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24 흥해작전



김노호 성도 (3교구, 이삭선교회)

6월 6일(목) 시작된 흥해작전과 비 소식으로, 8일(토) 예정된 이삭선교회 야외예배에 참석자가 저조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24명이라는 많은 회원들이 나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선교회는 1954년부터 1959년생까지 여섯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집안에 있기가 좀 불편하다, 부인 권사 보기가 다소 민망하다,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해야겠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하다, 몸이 자주 아파 힘들다는 등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다고 하셨습니다.

11시 30분경 식당에 모두 모여 예찬식 회장님의 사회로 찬송에 이어 차영도 장로님의 기도가 진행된 뒤에 행사 안내를 하고 식사에 들

어갔습니다. 모두 돼지 왕갈비 메뉴로 푸짐하고 맛있게 먹고 비가 좀 났을 후에 오늘의 행선지인 물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물의 정원은 484,188㎡의 광대한 면적의 수변생태공원입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조깅을 즐기고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동네 공원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 관광지라고도 합니다. 자연과 소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입니다.

회원들은 함께 뱃나들이교를 건너서 강변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개양귀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간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수려한 북한강과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광을 즐겼습니다. 강변에 서니 몇 주 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피조물의 희망'이라는 설교에서 삼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 이상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하

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소중한 물건을 취급하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강, 물, 나무, 꽃,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동등한 위치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의식이 번쩍 살아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강가에서 휴식한 뒤 함께 미사리에 있는 회원 커피숍을 방문하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야외예배를 통해 자연과 함께 하며 그들을 함께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9강:중보자(2)

14문: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제12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우리 또는 다른 이가 죄값을 완전히 치르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3문답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였고, 제14문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으니,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않는 존재를 택하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우시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14문답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비록 12문에서 “다른 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다른 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격없는 인간이라면 죄값을 완전히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자는 당연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거나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른 이”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15문: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면서도 죄값을 치루지 않고 피해가는 상황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랑과 정의가,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 의해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피조물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15문에서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피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5문을 다시 천천히 살펴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다른 이”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는 존재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는 것은 마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지만 자신이 죄값을 치루지 않고 피할 길을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4496>, [접속 2024. 3. 16.]

인간이 되신 하나님: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완벽한 중보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다른 이”, 곧 중보자이며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이며 구원

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비록 “다른 이”가 나의 죄책을 대신 짊어져도 그것 자체가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를 중재하셔야 하는 중보자이시기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

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의 죄값을 치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른 이”가 되신 사건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만으로 한정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성육신 사건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 4교구 전경배 집사·김연경 집사 가정
(자녀 첫 번째 생일을 감사드리며)
(김규태 은퇴안수집사·박미혜 권사 외손자)



- 5교구 한승균 집사·김양언 집사 가정
(자녀 첫 번째 생일을 감사드리며)
(김현영 은퇴안수집사·최현인 은퇴권사 외손자)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6.2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6.5	도르가, 루디아, 뵈뵈
6.9	자원자	바울, 엘리야	6.12	마리아
6.16	자원자	모세	6.19	한나, 에스더(오후 2-3시)
6.23	자원자	이삭	6.26	리브가
6.30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6월17일	월	시 26-31	신22	시110,111	사49	계19
6월18일	화	시 32-35	신23	시112,113	사50	계20
6월19일	수	시 36-39	신24	시114,115	사51	계21
6월20일	목	시 40-44	신25	시116	사52	계22
6월21일	금	시 45-50	신26	시117,118	사53	마1
6월22일	토	시 51-56	신27,28:1-19	시119:1-24	사54	마2
6월23일	주일	시 57-62	신28:20-68	시119:25-48	사55	마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주간의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앞에 놓인 흥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2. 서울교회 중직 피택자들의 훈련과정에 70인전도대와 파송선교지의 사역 현장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4대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헌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